

# 세계 유일 '출산율 0명' 국가되나... "지난해 0.97명 잠정"

합계출산율 35만8000명...역대 최저치 2017년보다 낮아  
2000년 64만명 '밀레니엄 베이비' 이후 초저출산 시대  
인구 규모 유지 2.1명 턱없이 부족...내달께 통계청 발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0명에 미치지 못할 거란 정부 전망이 나왔다. 출생아 수는 30만명을 웃돌았지만 출산율 0명대 시대에 접어들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는 24일 오전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한 제2차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을 0.97명, 출생아 수를 32만 5000명으로 잠정 추계했다. 합계출산율은 15~49세 여성 1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다. 35만8000명이 출생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1.05명으로 떨어졌던 2017년보다 낮은 수치로 출산율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출산율 0명대 국가가 된다. 이미 우리나라는 2016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72명을 기록,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 1.0명선 붕괴는 예고된 바 있다. 2017년 4분기 0.94명으로 '0명' 대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1분기 1.07명으로 소폭 올랐던 출산율은 2분기 0.97명에 이어 3분기엔 0.95명까지 떨어졌다. 우리나라는 이른바 '밀레니엄 베이비'가 태어난 2000년 64만명이 태어나 합계출산율 1.47명을 기록했으나 2001년 1.30명으로 떨어

지면서 초저출산 시대에 접어들었다. 2005년 처음 1.1명을 밀도는 1.08명까지 낮아지면서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를 출범했다. 이후 1.12~1.30명대를 오가던 합계출산율은 어느새 0명대 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은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다만 이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추계는 그간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추이를 토대로 예측한 결과다 정확한 통계청 발표는 다음달께 발표될 전망이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지난해 12월 기존 '3차 저출산 기본계획(2016~2020년)'을 수정·발표하면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출산·고령화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올해는 ▲아동 중심의 양육지원 체계 개편 ▲소득 공백 최소화 및 남성육아휴직 할당제 등 육아휴직 제도 개편 ▲가정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세부 발전방

안 마련 ▲일터·가정 성평등 구현 목표 구체화 ▲주민등록포 보완 ▲출생통보제 도입 ▲한부모 양육비 확대 ▲비혼자 난임시술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스

## 발등에 불 떨어진 출산율... "출생아수 30만명대 지지가 목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올해 말 32만여명 예상...30만명 밑으로 떨어지면 문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만명 출생아 수를 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창준 기획조정관은 지난달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사전설명회에서 "3차 기본계획에서 출산율(목표율) 1.5명으로 잡았는데 실현 가능한 수준이 아니다"라면서 "1971년 102만명 출산율 정점으로 지금 35만8000명으로 떨어졌고 올해 말에는 32만 2000명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데 30만명 밑으로 떨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30만명 출생아 수를 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8000명에 그쳐, 합계출산율이 1.05명을 기록했다. 정부가 이제부터는 출산율 목표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출산 장려 위주 정책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 했다. 출산율 목표치를 정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기존 정부 방식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 조정관은 "단기적으로 출산율 목표를 어떻게 잡는다고 하

라고 그것은 정부의 형식적 목표"라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출생아 수 30만명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지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새롭게 제시한 정책 목표는 2040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희망을 주고 남녀 평등한 일터와 가정이 당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은 결혼한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두 자녀를 낳았는데 지금은 한 명을 낳아 키우는 것도 어렵다는 인식이 커졌고 두 자녀를 포기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담을 덜어주기 위

해 의료·양육비 부담을 최대한 낮춰서 두 자녀를 키우든 세 자녀를 키우든 부담이 동등하게 되도록 해서 결혼해서 출산을 선택하는 가정이 기본적으로 두 자녀를 낳도록 하고 30만 명대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스



###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